

자기 주인 자체가 바로 실참!

21면에서 계속

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습니다. 왕비는 아주 겸손하고 뭐든지 모르는 척하고 살아오. 알지만 그러한 내색도 없이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 내비치지도 않게끔 자꾸 다짐을 하고요. 사람이 값싼 데다 쓰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신하더러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부인에게 보였죠. 그 인금은 부인의 말을 100%로 믿고 갑니다. 얼마나 착한지, 이 부인이 참, 보살이죠. 이거는 정말 누구 말마따나 관세음보살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더니 ‘아무개야, 물 한 그릇 떠 오나라.’ 그러거든요. 물 한 그릇을 끓여 데다 떠 오니까 이 물에다가 이 종이를 넣고 ‘아주 정성스런 대왕의 피 한 방울이 여기 들어가야만 이 글씨는 보입니다.’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피를 정말 넣어서 넣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성입니다. 내 마음으로 진짜로 믿고 이것을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의 임금이라면 생명을 걸고 임금노릇을 해야 돼요. 몸을 사리면 임금노릇을 못하죠.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손수 오른손 손날 부근을 잘랐습니다. 조금 해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그것이 퍼지면서 그 백지, 물속에 넣은 백지 속에서 글씨가 나오되 ‘이 글자를 못 읽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쳐서 삼키겠노라.’ 하고 써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백지에다가 아무 소리 없이 그 부인이 ‘무(無)’ 자 하나 썼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백지에요. ‘무(無)’ 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 그쪽에서는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글씨를 써서 보내도 문제인데 글씨를 쓰지 않았어도 글씨를 탁탁 알아내고 이걸 답을 했으니, 거긴 의인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칠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여우 아니라 불여우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도중에, 그 악한 도술로써 임금을 죽였던 말입니다. 죽인 게 지금으로 치면 안락사, 즉 도술로다가 죽였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 삼중천이나 저런 데 가서 이름이 다 통하는데, 환상천이다 하는 거는, 아직 죽을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은 그런 데 들어가서 이름이 박혀지 않고 그냥 거기 몰려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신하들더러 이 앞뒤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해놓고 자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 몸을 움켜쥐지 않고 죽은 거 같이 보일 테니까 모두가 장사를 지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장사 지내지 마세요.’ 그러고선 혼백을, 남편의 혼백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는 이런 데는 무명천이라고 하는데 환상천을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삼중천을 거쳐서 보니까 거기 이름이 들어와 있질 않아. 그래서 몰랐더니 거기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거기 가보면 알 수 있다고요. 즉 아까 얘기한 환상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천에 가서 모든 것을 조사한 끝에 혼백을 찾았습니다. 모든 부처들이 사방천에서도 도와주고 참 도리전에서 도술전에서 한마음이 돼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혼백을 찾아서 가지고 나오는데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아하, 내가 이렇게 갔다가 나올 수 있었던 건, 환상천도 무(無)고 이 무명천도 무다.’ 이거야. ‘모두가 무로 돌아가서 내가 직접 이 혼백을 가져오는 것이고, 조그마한 잡설 알갱이 하나만한 그 원동력이 이 세상을 싸고도 남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생도 알았고, 자기가 어떻게 해 나온 것도 알았고, 후일에 어떻게 될 것도 알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도 알았고, 모든 걸 거기에서 비춰봐서 다 알게 되고 그때에 눈도 뜨고, 즉 말하자면 불가에서 말하듯이 천안통으로

도리를 알아야 알아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수백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야 할 때에 그건 죽이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무명만 썼을 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즉 혼백을 또다시 내보내서 수련을 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죽여도 살리는 거, 살려도 살리는 거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인연이 없다 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인연이 있었습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 할 수 없다고, 건질 수 없다고 한 것이, 마음에서 떠나면 인연이 없는 겁니다. 구제가 되지 않고요. 또 지금 현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배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도 아주 우리 반쪽을 사이로써 소련과 더불어 나누어 가진 겁니다. ‘나는 반을 가질 테니 너도 반 가져라.’ 무슨 물건처럼 말입니다. 사랑 반 조각 쪼개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생각한다면 대의적인 생각을 떠나서 국내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 참 처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콧방귀 탁 꾸고 깔깔 웃으리만큼 돼야!

모든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혼백을 가져와서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고, 그레가지고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면서 참, 어떻게 행을 했을까? 그분은 몸으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약하게 하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왜, 애들 만화영화 있죠? 만화영화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현실로, 무전통신기와 광선, 레이저 광선이 있는 거를 보세요. 그게 그걸로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신하들은 다 놔두고 나쁜 사람들은 다 쳤답니다. 그 부인이 말입니다. 알아서 그렇게 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도 역시 뒷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나서서도 봐주었다는 얘깁니다. 나중엔 은데간데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마는 절로 들어가서 고승이 됐다 합니다.

그때에는 칼이나 창으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공중에서 싸우지 않으면 지금 육군이나 또는 공군이나 해군이나 군부가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삼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의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다른 어떤 육성에서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또 깨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요령만 알면 된다. 급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도에 따라서 크면 큰 대로 쓸 수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쓸 거면 육지에서 쓰고, 공중에서 쓸 거면 공중에서 쓰고, 물에서 쓸 거면 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알아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얘깁니다. 직접 보조를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야하려면 가시밭도 자갈밭도 아주 험한 진 구렁이도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저편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옛날에 수억겁 전에 사람 하나 만나기가, 사람 하나 되기가 힘들었거든. 그때에 사람이 몇백 리에서 하나 났으면 또 몇백 리 건널에서 하나 나고,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그렇게 수두룩하게 난 게 아니라 백 년에 하나 나기 어려울 만치 그렇게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지금까지 내려와서 형성된 이 인간의 밝힘이 얼마나 아팠었나.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까지 모습을 바꿔가면서 진화해서 이년까지 왔던 거라면 그냥 갈 수는 없죠. 수억겁 전년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화해서 지금 짙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잠

재의식 테이프에 살아온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모두 돌이 아니고, 모두가 형제고 부모고 자식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말입니다. 그건 뭐 중간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지금도 파를 흘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쫓기고 쫓고, 또 우리도 역시 쫓기고 쫓고 밀려나고 이렇게 살아오는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자리에 지금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이 자리에 태어나서 한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참 정당하게 또 편리하게 화목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콧방귀 탁 꾸고 깔깔 웃으리만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돌이 아닌 그 뜻을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그 잠재의식 테이프에 다 감긴 그것이 착 나오는 대로, 저 스크린 돌아가듯이 나오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처참하게, 나와 더불어 같이 걸어왔나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누구를 보고 그냥 악하게 할 수가 없고, 누구를 보고 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보고 때릴 수가 없고, 누구를 보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지렁이같이 그냥 순해 버린 양처럼 그렇게 사느냐? 아닙니다. 요만한 거 하나, 싸래기 반토막 하나 에누리 없이 살면서 그렇게 선

명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 가지 맛이 나도록 말입니다. 과일만 가지 맛이 난다면 만 가지 향내도 날 것이고 또 무르익는다면 여러분이 전부 맡았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제 나무에서 제 과실이 열리게 해서 무르익게 해서, 바로 자기가 맛을 본다면 그 과실 하나에서 맛이 만 가지가 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산에 가면 산맛이 나고 들에 가면 들맛이 나고 꽃을 보면 꽃맛이 나고 죽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꽃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벌레하고도 얘기하고, 죽은 사람과 전체, 전부와 얘기할 수 있어야 회전이 되고 맑고 할 거 아닙니까? 그대야만이 알아서 될 어떻게 하든지 하죠.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맞히고, 이마를 맞대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수억겁 전년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석존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왜 멀리 두십니까? 내 주인공 하면 그 속에 석존이나 일체제불이 다 계신 것을, 일체 조상들이 다 계신 것을 구태어, 왜 멀리 바깥으로 내놓고 선 찾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잘 깊어갈수록 생각 하셔서 기복을 떠나면서서 자성(自性), 자신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 위 법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아젠 제대로 알아!”



지은이/ 일광(逸光)
신국판/ 312쪽 / 9,500원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증 및 교육안내

◇ 입증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증신청서 (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 행사(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사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 수 있음.

◇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총무원 051)943-6570 / 중부총무원 043)648-8942 / 제주총무원 064)724-0318~9